

# “아쉬움 안고 갑니다... 이제 레버쿠젠맨”



소속팀 복귀 위해 獨 출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

“아시안컵 준우승 아픔 못 잊어  
한단계 더 성장했던 시간에 의미  
팀 챔피언십 진출 위해 뛰겠다”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주축 공격수로 맹활약한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은 55년 만의 우승 문턱에서 돌아서야 했던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곱씹었다.

손흥민은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면서 “아시안컵의 아쉬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영원히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하나였던 손흥민은 우즈베키스탄과의 대회 8강전에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던 연장전 2골을 폭발, 한국을 4강으로 이끌었다.

이어 호주와의 결승전에서는 0-1로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종료 직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연장전에서 호주에 결승골을 허용하고 팀이 패하면서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다.

대회를 돌아보며 손흥민은 “결승까지 가서 진 것이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이 되어도, 다음 아시안컵이 되어도 (이번 대회 준우승은) 아쉬울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4년 전에는 어린 선수가 아시안컵에 출전해 겁 없이 뛰었다면, 이번에는 ‘손흥

민’이라는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던 무대인 것 같다”며 긍정적인 의미도 부여했다.

소속팀 레버쿠젠에서 각종 대회를 통틀어 시즌 11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짧은 휴식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 곧장 이번 주말부터 분데스리가 경기를 소화할 예정이다.

손흥민은 “다른 팀원들은 이미 후반기를 시작했다. 빨리 돌아가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 시즌 개인 최다골(12골)에 이미 한 골 차이로 근접한 그는 “제가 몇 골을 더 넣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팀이 챔피언십리그 출전권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흥민은 “팀이 상위권에서 뒤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매 경기 중요하고, 승점 3을 따야 한다”면서 “개인 욕심보다 팀에 더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표팀에서 계속 활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소속팀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중요하다는 걸 손흥민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표팀에 들어오려면 소속팀에서 잘 해야 한다”면서 “열심히 뛰여 남들보다 탁월한 활약,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

## “부진 원인은 샷 교정 목표는 마스터스 우승”

지난주 프로 데뷔 이후 최악의 스코어를 적어낸 타이거 우즈(미국)가 올 시즌 최대 목표는 마스터스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 출전하는 우즈는 5일(이하 한국 시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9일 열리는 마스터스에 대비해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피닉스 오픈 2라운드에서 82타를 친 뒤 컷 탈락한 우즈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닉스 오픈에서 집샷 난조로 고전한 우즈는 안개가 낀 날씨 속에 대회장인 토리파 인스 골프장에서 9개홀을 돌며 연습라운드를 하는 동안 쇼트게임에 집중했다.

우즈의 연습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지난주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했다.

우즈가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도 스윙 코치인 크리스 코모를 비롯해 팻 페레스, 빌리 호셀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취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우즈는 지난주 부진의 원인을 스윙 교정 탓으로 돌렸다.

그는 “옛날과 지금의 스윙은 극과 극의 위치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전혀 반대”라며 “좀 더 샷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주장 임선영

## “약팀이지만 쉬운 팀은 안될 것 동료애로 클래식 안착 하겠다”

“개인 욕심은 없다. 올해는 팀 밖에 없다.”

광주 FC 주장 임선영이 ‘희생의 시즌’을 예고했다.

지난 시즌 중반 완장을 맡았던 임선영은 올 시즌에도 주장 역할을 수행한다.

동료들과 기적 같은 승격의 순간을 누렸던 그는 올 시즌에는 클래식 무대에서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다시 웃고 싶다. 그 목표를 위해 주장 임선영이 선택한 전략은 ‘희생’이다.

임선영은 “올해는 팀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한다.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수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팀에 어린 선수가 많은데 클래식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약팀’이다. 광주의 창단멤버로 팀의 굴곡 많은 지난 시간을 지켜본 임선영 역시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임선영은 “다른 팀이 쉽게 생

각하지 않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약팀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팀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지난 광양 전지훈련에서도 선수들과 많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강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자는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라운드에서 우리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이끄는게 주장으로서의 내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장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다시 맡게 됐지만 임선영은 부담보다는 고마움이 더 큰 자리라고 말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챙기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임선영은 “선수들이 워낙 착해서 이끌지 않아도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해냈다.

주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힘든 것은 없다”며 “오히려 선수들이 나를 챙겨준다. 밥도 늦게 먹고 그러는데 옆에서 잘 챙겨준다. 고맙다. 이번 캠프에서 부상 없이 자신감을 키우고 돌아오겠다”고 시즌오가 캠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